

# 전략이란 무엇인가?



金 鎮 恒  
합참전략기획참모부  
육군 대령

현대적 의미의 전략은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동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전략은 복잡한 일을 성공적으로  
달성가능케 하는 체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변화와 변수가 많은  
업무에는 반드시 전략적 사고과정을  
필요로 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사회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올바른 전략수립  
여부가 승패를 결정한다.

오늘날 전략이라는 용어는 사회 도  
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  
만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  
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본래의 전략  
분야에서는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략은 막연히 애매하고 어려운 것으로 치  
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전략이라는 용  
어가 사회변화와 더불어 변화, 발전된 점을  
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용어와 일상용  
어가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  
가하여 전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환경과  
사람에 따라 지칭하는 범위와 의미가 다양  
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략을 공부하는 학생들  
마저 ‘전략은 어려운 것, 혹은 애매한 것, 아  
니면 구름잡는 것’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전략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면서도 정작 전략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한다. 왜 그럴까?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서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전략이라는 용어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가 보다. 그렇다면 전략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간단히 답하기는 쉽지 않다.

만일 그것이 쉽다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고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략이라는 용어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리라.

전략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전문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바라는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전쟁하는 피를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전략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어지는 분야가 넓어져서 전략 그 본래의 의미보다는 기획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전략의 전문적인 의미보다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보통명사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생활 전 부문에서 전략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적으로 전략이라는 용어가 쓰임새가 많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일반명사화되어 쓰여지다 보니 원래의 전략 개념으로는 사용자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략에 대한 개념에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 원래 언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 그 의미가 확대되거나, 심하면 다른 의미로도 쓰여지는 의미의 전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날 전략의 의미는 원래 전략의 의미보다는 '략(略)'의 의미로 변화되어,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 어의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는 전략 앞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정하는 수식어가 붙어야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전략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고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리해 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쉬우면서도 명쾌하게 이해되도록 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략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 전략용어 사용의 오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거대한 조직에서 업무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전략의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

### 전략의 전통적 개념

---

전략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strategos' 또는 'strategia'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 'strategos'라는 말은 고대 아테네에서 10개의 부족단체로부터 차출된 10개 연대(Taxi)를 총 지휘했던 장군의 명칭이다.

이 'strategos'가 구사하는 용병법을 'strate 5 gia'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군의 지휘술(Generalship), 또는 장군의 술(the art of the General)을 뜻하며<sup>1)</sup> 이와 같은 말들이 발전되어 오늘날의 Strategy라는 용어가 되었다.

이러한 전략의 의미는 고대 중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한

자로는 '싸움할 戰'자와 '피 略'자가 합쳐진 용어로 '싸움하는 피'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은 고대 중국의 주나라 병서인 「六韜」와 「尉繚子」 등에서 사용된 戰權, 戰道, 兵法, 兵道라는 용어가 발전된 것으로 權謀, 謀攻之法, 智略, 善戰之 謀略 등의 말과 동등하게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전략이라는 용어는 춘추시대 이전의 주왕조 초기에는 순수한 武人の 행동에 관한 군사적 의미로 한정되어 사용되었으나, 도시국가의 연합체가 형성된 춘추시대에 접어들면서 무력과 권모를 동시에 구사하여 정치를 행한, 소위 패권에 의한 정치 수단으로 변모됨으로써 순수한 군사적 개념 이외에도 비군사적인 개념이 포함된 복합개

념으로 발전하였다.<sup>2)</sup>

이와같이 전략이라는 용어는 대략 17세기 말까지는 전쟁이 비교적 단순하고 수단 면에서 제한되었기 때문에 단지 준비된 무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군사력 분야에 국한되어 통용되었다.

즉,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의 수단이 생활 도구이거나 그 생활도구를 전쟁에 유용하도록 약간 발전시킨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병력 역시 필요시에 동원하여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군사력의 준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준비된 전쟁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 관심대상이었다. 따라서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의 생각 그 자체가 전략일 수밖에 없었다.

도하훈련중인 능륜한 우리의 응사들



전략이란 용어가 앞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정치와 군사적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미로서 전략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가 되어서였다. '전술(tactics)'이 전략이라는 용어보다 먼저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였다.

그러나 전쟁은 보다 복잡해지고 프랑스혁명의 경우처럼 전쟁이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 한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게 되었다.<sup>3)</sup>

이후에 결국 전술이란 용어와 구분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용어의 정치·군사적 활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전술이란 고대 그리스의 'taktika'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용어는 "배열한다" "정돈한다"는 뜻으로, 환언하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동시켜 전투력을 행사하는가의 술(術)을 뜻하는 것이다.<sup>4)</sup>

그러면 전략과 전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개념지어져 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1801년 파리에서 발간된 군사사전은 처음으로 'Strategime'이라는 용어를 '전투의 규칙 또는 적을 패배시키거나 굴복시키는 방법'이라고 정의하였고 '전술'을 병력이동의 과학이라고 정의하였다. 나폴레옹 전쟁 기간 중에 전략이란 용어는 점차 'Strategime'이란 뜻을 함축하게 되었고 "장군의 술"은 광범한 영역의 제반활동을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계획에 관련되는 활동을 포함하게 되었다.<sup>5)</sup>

또한 조미니는 전략을 6가지 전쟁술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는데, 그 6가지는 전략(strategy), 정략(statemanship), 대전술(grand tactics), 군수(logistics), 공병술(the art of engineer), 그리고 소전술(minor

tactics)등이다.<sup>6)</sup>

클라우제비츠는 전략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투의 사용이며, 전술은 전투에서 전투력의 사용이라고 하였다.<sup>7)</sup>

테니스 마한은 전략을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의 과학이며, 전술은 부대를 조직적으로 결집시키고 이동시키는 술이라고 하였으나 양자의 정확한 한계가 어려움이라고 토로하고 있다.<sup>8)</sup>

영국과 미국의 참모대학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전략이란 승리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패배의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에 대해 유리한 위치에 군대를 배치하기 위하여 작전지역에 군대를 이동시키는 술이며, 전술이란 전장에서 부대를 기동시키고 전개하는 술이다"<sup>9)</sup>라고 정의하였다.

알프레드 마한은 "접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전술은 적과의 접촉상황 하에서 군사력을 이동시키는 것이고 전략은 접촉없이 군사력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고<sup>10)</sup>, 프랑스 전쟁대학의 보날 장군은 전략을 사고(계획작업을 위한)의 술로 전술을 실행의 술로 정의하기도 하였다.<sup>11)</sup>

국방대학원에서 발간한 <안보관계 용어집(1991)>에서는 "전략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요 전술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전략은 군사분야의 최고 통치자에 직접 관련된 영역이고 전술은 예하 지휘관의 영역"이며, "전략은 독창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전술은 다소 정석적인 측면이 강조"되며, "전술적 실패는 전략에서 만회가 가능하지만, 전략적 실패는 전술에서 만회가 불가능한 것"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전략과 전술의 비교를 통하여 전략의 개념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

었다. 즉, 전통적 개념의 전략은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사고하고 정의하였다. 전략 원래의 범주를 채 벗어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아직도 어딘가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그러한 이유는 전략에 대한 전략가들이나 학자들의 설명이 틀려서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상황에서 전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였기 때문이며, 전략가들의 당시 상황에 적합한 전략에 대한 설명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전략의 현대적 개념

전쟁의 근대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옹 전쟁을 전환점으로 전략의 개념이 확대되어 “전장의 행동에서 중시되었던 ‘장군의 술’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한 나라의 전체적인 노력을 조정하는 업무”<sup>12)</sup>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더욱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개념확장으로서는 현대에서 쓰여지는 전략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에 충분치 못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까지도 전략은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상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 국가에서는 장수가 곧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였으며 국가의 생성과 흥망성쇠가 곧 전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다. 통치권자의 국가경영은 곧 전쟁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써, 백성들의 경제 활동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관심 사항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사항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발전론 측면에서는 산

업사회 이전까지이고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시대까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당시까지는 국가전략으로부터 오늘날의 작전전략까지를 전략이라는 용어로 포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등장은 국가통치자로 하여금 전쟁 이외의 사항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산업사회에서는 국가적 관심이 전쟁보다는 경제적인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하였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이 아닌 방법에 더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국가전략이 곧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전략이 될 수 없으며, 국가전략은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하면 생존하여 번영할 수 있는가 하는 목표를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수단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전략은 이제 국가전략의 한 분야로서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국가목표를 구현하는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근래에는 전략이라는 용어가 군사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전략 개념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전략이라는 용어가 군사분야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를 고집할 수도 없다.

용어의 의미 확대 및 변화란 누가 이렇게 정의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라는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 인류사회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상태에서 그냥 이해해야 할 것이고 그 개념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

전략은 군사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

생활전반에 널리 쓰여지고 있다. 국가에는 국가전략이 있고, 기업가에게는 기업전략이 있으며, 축구감독에게는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영업사원에게는 영업전략이, 심지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수험생에게는 자신이 받은 수학능력 점수로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원서 접수 전략이 있다.

다시 말해 전략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 전 분야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자주, 그것도 유식한 체 하면서 사용하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용어가 되었기 때문

에 이제 더 이상 '전략'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군사전문가의 전문용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략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것이 원래의 전략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지는 전략이라는 용어를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전략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전문 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로서 개념이 정의되고 전문적인

최신에 국산장비를 보유하고 고도의 사격술을 연마한 포병부대



분야를 지칭할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용어를 다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군사적 전문용어인 전략이라는 용어가 일반사회에 이렇게 널리 사용되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마 전략이라는 용어가 갖는 기획적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이되면서 사회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단순한 관리로는 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경영에는 필수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경영학의 발달과 더불어 2차 세계 대전의 영향으로 군사문화의 사회전이 현상과 맞물려 전략이라는 용어가 일반사회 영역에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발전은 상호 경쟁 과정-상업주의적 측면-에서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문제에 접하게 되자 좀 더 자극적이고 센세이셔널한 표현을 많이 쓰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일상 생활의 사소한 경쟁관계를 전쟁이나 전투에 비유하는 경향이 심해졌고 따라서 군사용어를 전용하는 경향도 심화되었다.

그러면 전혀 관계없는 단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현대에 전략이라는 개념이 사회 전 분야에 쓰여지고 있다고 해서 전략이 가지는 속성적 의미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전략적이라고 쓸 때에 그것은 뭔가 좀 미래적이고 규모가 큰 상급기관, 혹은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의 행동양식을 지칭하고 아울러 그것은 무엇인가를 상대방이 모르게 은밀히 준비해서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대안을 전략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전략이 원래 태동한 상황과는 다르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략이 쓰여지는 상황과 대상이 다를 따름이지 원래의 본질적 속성은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략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략의 속성을 좀더 과장하고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경영학적 측면에서 보면 기획과정에서 전략의 미래 지향적이고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선정하는 속성을 기업에 원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생활의 모든 활동을-그 강도나 치열도가 낮거나 상대가 다르긴 하지만-전쟁으로 비유하여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오늘날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전략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의해 두고 필요한 특수 전문 분야에서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의미 전달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한정어를 접두어나 수식어로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전략은 군사분야에서 태동되어 사회 전 분야로 널리 퍼져나간 출세한 단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 전략의 개념은 전통적인 개념을 협의의 전략개념으로 정의하고 오늘날 보편적으로 쓰이는 전략개념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오히려 불편할 뿐이므로 현대적 의미에서 전략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요에 따라 수식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전략은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동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여기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목표이며, '체계적 행동계획'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가장 합리적 기준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 맺는 말

전략이라는 용어가 語義 확대과정을 거쳐 오늘날 사회 전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러한 이유는 전략의 속성과 매력 때문이다.

즉, 전략은 복잡한 일을 성공적으로 달성 가능케 하는 체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고 변수가 많은 업무에는 반드시 전략적 사고과정을 필요로 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사회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올바른 전략수립 여부가 승패를 결정한다.

아울러 외형적으로도 전략이라는 말을 쓰면 뭔가 유식하고 유능한 것 같고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 같은 생각이 들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피가 숨어 있어 보통사람으로서는 생각해 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또한, 전략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속성이 강하여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쓰여지고 있는 전략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부여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략이란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체계적

행동계획"이라고 이해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수식어를 붙여 사용한다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防

### 註

- 1) 유재갑, 「전략론:군사전략의 개념과 범위」, <안전보장이론, I>, 국방대학원, 1991, 390쪽.
- 2) 신정도, <전략학 원론>, 동서병학 연구소, 1970, 15~16쪽
- 3) Edward Mead Earle, 「전략용어의 주석」, Information Service for Officers, Vol.4, 1949. 12.  
최병갑 외, <현대군사전략대강 I>, 을지서적, 1988, 150쪽
- 4) 국방대학원, 안보관계용어집, 1991, 120쪽
- 5) A. T. Gaine, Nouveau dictionnaire militaire (Paris, 1801), p.592.
- 6) Baron Jomini, Art of War, 국방대학원 <조미니의 전쟁술>, 1987, 9쪽
- 7) 안보관계용어집, 120쪽
- 8) Denis Mahan, Advanced-Guard and Detachment Service of Troops, with the Essential Principles of Strategy and Guard Tactics for the Use of Officers of the Militia and Volunteer(New York, 1863), p.170
- 9) Arther L. Wagner, Organization and Tactics, 2nd ed. (Kansas City, Missouri, 1897), p.1.
- 10) Ai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7th ed. (Boston, 1984), p.8.
- 11) Gabriel Darrieus, War on the Sea, Strategy and Tactics, Basic Principles, trans., by Philip R. Alger(Annapolis, 1908), p.10.
- 12) Ken Booth, 「The Evolution of Strategic Thinking」, John Baylis, et.al., Contemporary Strategy: Theories and Polices (New York: Holmen & Mejer pub., 1975) pp.22~49.